

나주시, 핵융합 중심 미래 에너지 청사진 그린다

인공태양 연구시설·교육·산업 인프라 등 유기적 연계 반도체·RE100 등 결합...초광역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나주시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교육-산업' 인프라를 결합,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 구축에 나서며 '글로벌 에너지 실리콘밸리'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부시장) 주재로 '나주시 에너지(핵융합) 특화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핵융합을 중심으로 차세대 에너지 기술과 반도체, RE100 등 첨단 산업을 연계한 에너지 테크노폴리스 구축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인공태양 구축 관련 부서를 비롯해 기획, 투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시정 핵심 부서가 참여해 핵융합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통합 전략을 논의했다.

시는 국가 핵융합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향후 구축될 대형 연구시설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한국전력공사 등 지역의 연구-교육-산업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과학 기술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의결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내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를 적극 활용해 초광역 에너지 산업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가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초전도도체, 고진공 등 핵융합 핵심 기술과 전력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연구-실증-제조'가 선순

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핵융합 중심 국가 에너지 거점으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나주의 인공태양 자원은 국가 에너지 주권을 뒷받침할 핵심 동력"이라며 "핵융합을 중심으로 RE100,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결합한 초광역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주를 글로벌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나주시는 최근 에너지(핵융합) 특화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나주시청

완도, 드라마 촬영지 '해신 장보고 지구 관광' 자원화

전남도 주관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공모 선정

완도군은 최근 전남도 주관 '2026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했다.

공모 선정으로 사업 대상지인 '해신 장보고 지구 관광지(청해포구 촬영장)'에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경관 개선, 심터 조성, 관광 동선 정비 등을 통해 보다 매력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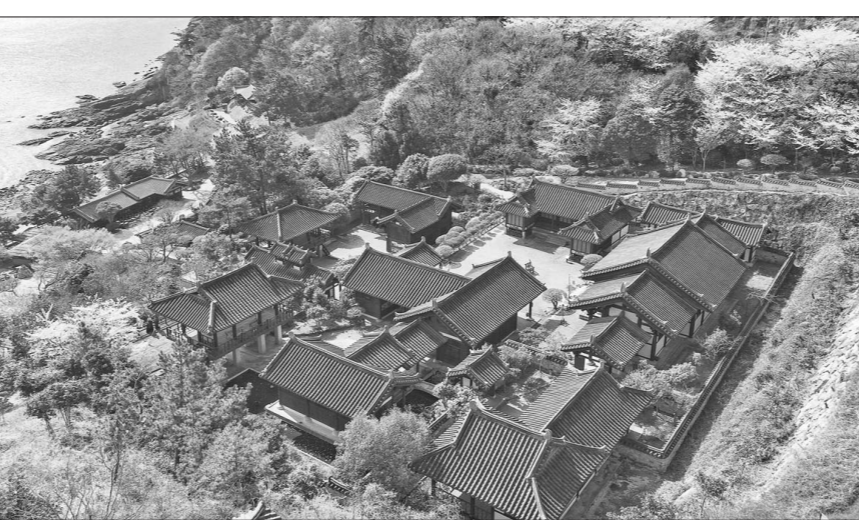
사업은 올해 계획을 수립해 2028년까지 추진된다.

청해포구 촬영장은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활동 무대였던 청해진을 모티브로 지난 2004년 조성됐으며, 2007년 관광지로 지정됐다.

바다를 끼고 형성된 개방형 구조가 특징이며, 완도수목원과 국도 77호선 해안도로 등 주요 관광지와도 연계돼 있어 해마다 방문객이 꾸준히 찾는 곳이다.

청해포구 촬영장에서는 지난 2004년 시청률 30%를 기록한 해상왕 장보고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 '해신'을 시작으로 '태왕사신기', '대조영', '주몽', '추노', '조선 변호사'와 영화 '명량', '해적' 등을 촬영한 바 있다.

군은 재생사업을 통해 청해포구 촬영장을 단정해 관광객 유입, 드라마·영화 촬영 유치 등 관광 경쟁력과 지역 이미지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완도 청해포구 촬영장 전경. 사진제공=완도군청

한편 최근 '왕과 나는 남자'가 흥행하면 시 강원도 영월군의 청룡포와 정릉에 관광객이 대거 방문하는 등 드라마·영화 촬영지 관광 명소로 자리 잡으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완도=김해규 기자 knk1831@gwangnam.co.kr

담양 '고혈압·당뇨 바로 알기 교실' 운영

생활 밀착형 실습...합병증 검사비 지원도

담양군은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고혈압·당뇨 바로 알기 교실'을 진행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뤄진 이번 프로그램은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질환을 관리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총 4회 과정으로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고혈압·당뇨병의 이해와 합병증 예방관리, 올바른 복용 방법, 저염·저당 식이요법, 일상 속 유산소 및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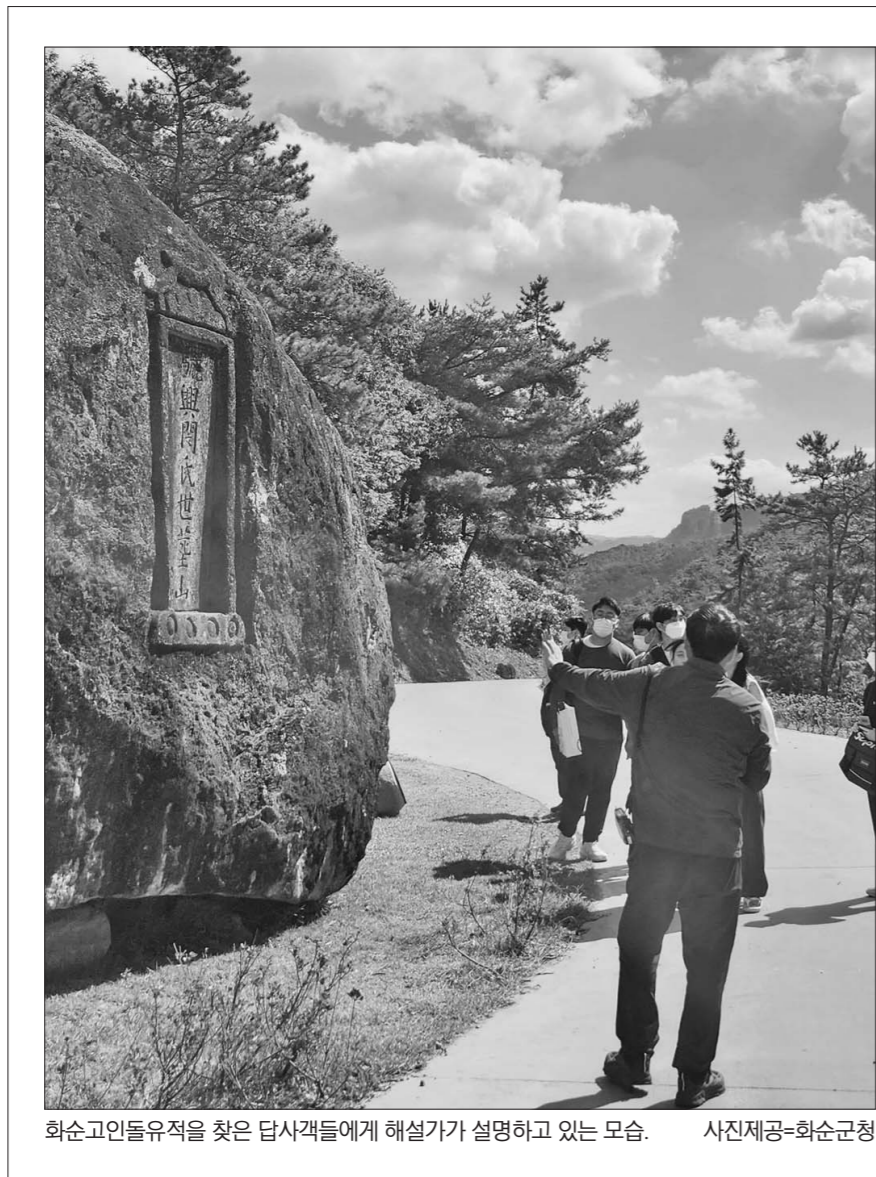
교육은 염도계를 활용한 나트륨 측정, 건강 간식 만들기, 스트레칭 실습 등 체험

위주로 진행했다. 이론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 속 실천 방법을 몸소 익히게 함으로써 올바른 습관 형성을 도왔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 기초 건강 측정과 개인별 건강 상담을 제공했으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담양사랑병원과 담양우리안과에서 진행되는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인 질환인 만큼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화순고인돌유적을 찾은 탐방객들에게 해설사가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화순군청

화순,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홍보 나선다

12월까지 글로벌 방송...다국어 영상 콘텐츠 제작

화순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고유의 역사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로컬(Local)'과,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활용한 '글로벌(Global)' 전략을 결합한 '글로벌(Glocal)'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이를 통해 국내 관광객은 물론 196개국 대표단을 비롯한 세계 방문객에게 화순고인돌유적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먼저 고인돌유적지 내에서는 로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청동기 거석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멋들을 활용한 '대신리 커피공방',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속자료 전시관',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고인돌 탐방버스', 테라리움을 활용한 고인돌 반력 시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글로벌 홍보를 위해 오는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기간 중 전시장에 화순고인돌유적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홍보부스에서는 화순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담은 다국어 홍보 패널과 배너, 영상 콘텐츠를 선보인다.

또 특별 제작한 고인돌 애니메이션을 통해 국내 방문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람객도 쉽고 흥미롭게 유적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기은 고인돌사업소 소장은 "이번 홍보사업은 단순한 관광 홍보를 넘어 고인돌유적이 지닌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역민과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화순고인돌유적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군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은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주민들에게 실질적 소득마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사업을 신청한 마을의 이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전남도 산하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문가가 사업 추진 배경, 운영 방식, 참여 절차, 지원 내용과 예상 수익 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웠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진도, 햇빛소득마을 사업 설명회 개최

에너지 자립·탄소중립 실현·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진도군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햇빛 소득마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업을 신청한 마을의 이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전남도 산하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문가가 사업 추진 배경, 운영 방식, 참여 절차, 지원 내용과 예상 수익 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웠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군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은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주민들에게 실질적 소득마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사업을 신청한 마을의 이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전남도 산하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문가가 사업 추진 배경, 운영 방식, 참여 절차, 지원 내용과 예상 수익 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웠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진도군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햇빛소득마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진도군청

해남, 중동 정세 관련 농자재 수급 점검

비료·필름 등 수급 안정 관리...과도한 구매 자재 요청

해남군은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 관련 유가 불안에 따른 비료, 면세유, 필름 등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와 읍면 농협자재부를 대상으로 농자재 재고 및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해남군은 농업인이 주로 구매하는 농협 중앙회 및 읍면농협 지역별 거점 판매장의 재고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

에따라 비료 중 보리면적 증가로 인해 요소 재고가 감소했으나, 기타 비료는 상호 교환해 사용할 수 있어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고추, 고구마 등 농업용 필름은 전쟁 이전에 확보한 재고를 기반으로 농가에 공급되고 있고 아직까지 수급에 큰 차질은 없지만 정세 불안상황이 장기화되면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군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농협에서는 과소요를 예방하기 위해 전년도 구매량에 비례해 농업인들에게 비료 등을 판매 관리하고 있고, 농업인이

적정 시비량을 지켜 사용해 비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격 상승에 대응해 예산확보 및 집행, 농자재 수급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비료·필름·면세유 등 농자재 수급에 큰 차질은 없으나 비료 일부품목에 대해 농협과 함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 대응 중이다"며 "농업인들께서 불안심리로 인해 과도한 구매로 필요 농자가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구매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영광, 공공시설 내 '무료 생리대' 비치

영광군이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무료로 비치하는 조례를 최종 통과시키며 여성친화 정책을 본격화했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영광군의회에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 이용 중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생리대 등 보건위생

물품을 비치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위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 친화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